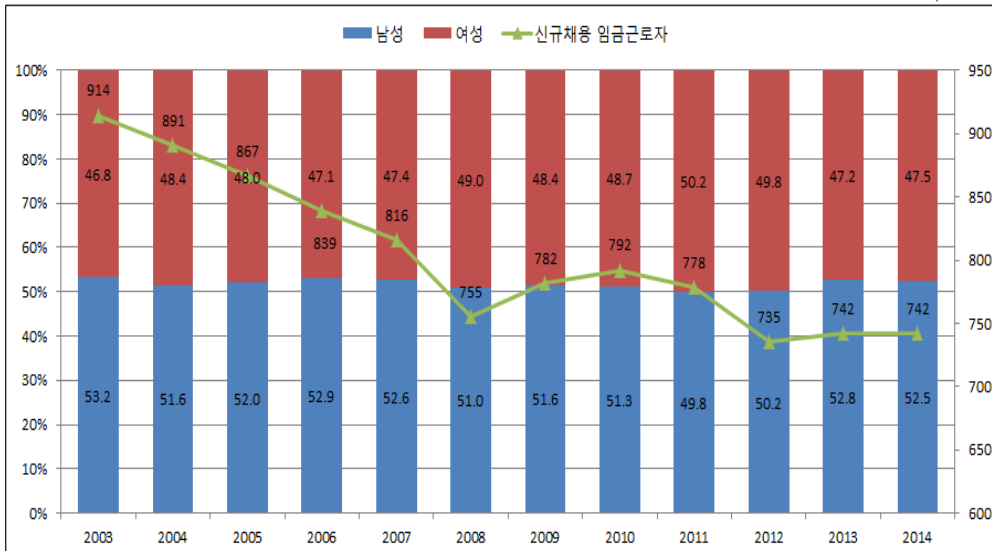


청년층(15~29세) 신규채용 변화 추이 및 특성*

- 2003년 기준 청년층(15~29세)의 성별 신규채용¹⁾ 비중 격차는 6.4%p로 분석기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,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여성의 신규채용 비중과 남성의 비중이 역전되어 -0.4%p까지 좁혀짐(그림 1 참조).
 - 신규채용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03년(914천 명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755천 명을 기록하였고,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 - 2003년 이후 남녀 신규채용 비중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기준 남녀 신규채용 비중은 각각 52.5%, 47.5%로 나타나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(2014년 5.0%p).

(그림 1) 청년층 신규 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중

(단위 : %, 천 명)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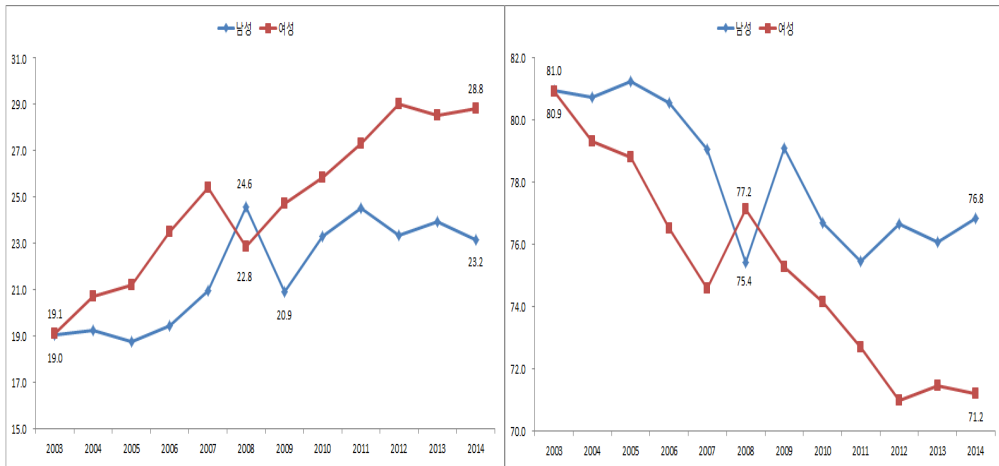
*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년부터 2014년까지(1월~11월 평균) 자료를 이용하였고,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음.

1) 신규채용이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뜻하며 생애 첫 취업이란 의미는 아님.

- 성별임금근로자 대비 성별·종사상지위별 신규채용 비중을 살펴보면, 2003년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(그림 2 참조).
 - 신규채용 되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03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남녀 상용직 신규채용 비중은 각각 23.2%, 28.8%로 나타났으나 임시·일용직에 비해 각각 1/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.
 -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남성과 여성의 상용직 신규채용 비중은 각각 24.6%, 22.8%였고, 임시일용직 신규채용 비중은 각각 75.4%, 77.2%로 나타나 분석대상기간 중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변화추이가 역전되는 형태로 나타남.
 - 경기가 악화되면 취약계층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.

[그림 2] 성별·종사상지위별 청년층의 신규 임금근로자 비중(상용직(좌), 임시·일용직(우))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- 제조업 신규채용 및 신규 임금근로자 대비 성별비중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, 서비스업은 신규채용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(표 1 참조).
 - 2014년 제조업 남녀 신규채용은 각각 65천 명(16.7%), 여성 24천 명(6.9%)으로 2004년에 비해 남녀 각각 20천 명(1.8%p), 25천 명(4.4%p) 감소하였음.
 - 2014년 서비스업 남녀 신규채용은 각각 293천 명(75.2%), 여성 324천 명(91.8%)으로 2004년에 비해 남녀 각각 신규채용은 17천 명, 48천 명 감소하였으나 신규 임금근로자 대비 남녀 비중은 각각 7.7%p, 5.5%p 증가하였음. **KLI**

〈표 1〉 산업별·성별 청년층의 신규 임금근로자 변화 추이 및 비중

(단위: 천 명, %)

	신규 임금근로자		제조업		서비스업		건설업		기타	
	남성	여성	남성	여성	남성	여성	남성	여성	남성	여성
2004	460	431	85 (18.5)	49 (11.3)	310 (67.5)	372 (86.3)	60 (13.1)	8 (1.9)	4 (1.0)	2 (0.5)
2005	451	416	83 (18.4)	44 (10.5)	306 (67.9)	364 (87.5)	60 (13.2)	7 (1.7)	2 (0.5)	1 (0.3)
2006	444	395	73 (16.5)	41 (10.3)	320 (72.1)	345 (87.5)	47 (10.5)	8 (2.0)	4 (0.9)	1 (0.3)
2007	429	387	62 (14.5)	34 (8.7)	326 (75.9)	345 (89.2)	39 (9.0)	8 (2.0)	3 (0.6)	1 (0.2)
2008	385	370	58 (15.2)	28 (7.4)	292 (75.7)	335 (90.6)	33 (8.5)	6 (1.6)	2 (0.6)	1 (0.4)
2009	404	378	62 (15.4)	31 (8.2)	305 (75.7)	339 (89.5)	33 (8.3)	6 (1.6)	3 (0.6)	3 (0.7)
2010	407	385	74 (18.2)	33 (8.6)	295 (72.5)	347 (89.9)	33 (8.2)	4 (1.0)	5 (1.1)	2 (0.5)
2011	388	390	68 (17.4)	34 (8.8)	295 (76.1)	349 (89.4)	22 (5.6)	5 (1.3)	3 (0.9)	2 (0.5)
2012	369	366	67 (18.2)	28 (7.6)	273 (74.1)	331 (90.4)	25 (6.8)	5 (1.5)	3 (0.8)	2 (0.5)
2013	391	350	64 (16.3)	28 (7.9)	295 (75.5)	318 (90.8)	30 (7.7)	3 (1.0)	2 (0.5)	1 (0.3)
2014	390	352	65 (16.7)	24 (6.9)	293 (75.2)	324 (91.8)	29 (7.5)	3 (0.9)	2 (0.6)	1 (0.3)

주: 산업 가운데 서비스업에는 E: 하수폐기물 처리 등, G: 도소매업, H: 운수업, I: 음식숙박업, J: 출판영상방송통신 등, K: 금융보험업, L: 부동산 및 임대업, M: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N: 사업시설관리 등, O: 공공행정, 국방, 사회보장행정, P: 교육서비스업, Q: 보건 및 사회복지업, R: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, S: 협회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T: 가구내 고용활동, U: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고, 기타에는 A: 농림어업, B: 광업, D: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음.
 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, 각 연도.

(정현상, 동향분석팀 연구원)